

정립Letter

법무부 청렴알림 e

WWW.MOJ.GO.KR

MINISTRY OF JUSTICE

NEWS LETTER



청렴의 실천
공정의 실현

✓ Issue 1

청렴 포커스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교정제도개선 일문일답 인터뷰

✓ Issue 2

청렴 탐방
조선 대표 청백리 고불 맹사성
영화로 알아보는 청렴 이야기

청렴의 길, 공정과 소통을 생각하다.



청렴시민감사관

김용성

(전 춘천준법지원센터장)

법무부의 반부패·청렴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청렴알림e’가 여섯 번째 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이번 청렴알림e로 쉽고 즐겁게 다양한 관점에서 청렴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은 늦봄부터 시작된 더위로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지나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 온 것을 보면, 올해도 빠르게 흘러감을 체감합니다. 저는 26년간 보호 행정에 전념하다 지난 2018년 춘천준법지원센터장을 끝으로 퇴직하였는데, 26년간의 공직 생활도, 5년간의 퇴직 후 세월도 빠르게 바뀌는 계절들처럼 순식간에 지나간 듯합니다.

올해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재위촉되면서 벌써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한 지도 3년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활동하다보면 저의 공직생활을 되돌아 보게 되고, 청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행위가 부패라고 믿었고 이것들을 없애는 것이 청렴이라고 믿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청렴은 단순히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과 같은 부정부패를 배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청렴의 길을 찾아 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공정과 소통을 또 다른 청렴의 길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정’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공평하고 올바름’을 뜻합니다. 공평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기준과 규정을 정하고 이를 따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과 규정이 올바르지 않다면 국민의 혼란은 가중되고 공정과는 거리가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준과 규정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상·하급자 간의 원활한 소통,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 등 적절한 조직 내·외의 소통이 다수가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법령을 제·개정할 때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을 하고 때때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는 것도 바로 올바른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과정의 일부일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만들어낸 다수가 공감하는 잣대에 따른 공정한 행정,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의미가 확장되는 청렴을 생각해보면 청렴은 쉬운 듯하지만, 전혀 쉽지 않은 우리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지만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렴한 법무부를 위한 직원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역할을 통해 더욱 청렴한 법무부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렴알림e의 제6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법무부 청렴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 성 CONTENTS



청렴 소식



청렴포커스



청렴 탐방



청렴 퀴즈

청렴 소식



2023년 법무부 청렴 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지난 9월 7~8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등을 위한 청렴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청렴워크숍은 감찰관, 감사담당관 및 청렴멤버스 등 총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 개최 이래 처음으로 1박 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청렴 규범 교육, 청렴 힐링 교육,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렴 규범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청렴 법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청렴 힐링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워크숍 참여자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만들어진 참여자들 간 단합을 바탕으로 법무부 종합청렴도 개선을 위한 분임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분임토의는 직렬별로 7개 분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각 분임은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 변호인 접견, 보관품품 접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승인 총 4가지 주제 중 1개 주제에 대한 청렴도 개선 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각 분임이 제출한 개선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2개의 우수분임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청렴 워크숍은 청렴 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렴멤버스를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하여, 더욱 집중도 높은 교육과 분임토의가 운영되었으며, 특히 직렬별 실무에 대한 청렴도 제고 방안을 생각해본 분임토의 시간을 통해 청렴에 대해 몸소 체감해 볼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구성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익한 청렴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화면보호기' 제작

법무부는 2023년 9월 공정채용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화면보호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청렴 화면보호기는 공공부문 공정채용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법무부 내 공정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제작하였으며, 채용비리의 정의, 주요감사 지적사례, 채용비리 신고 방법 등 총 5페이지의 카드뉴스로 구성되었습니다.



화면보호기는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업무용 PC에 설치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PC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법무부 청렴 라이브 개최



법무부는 2023년 7월 21일 정부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국민 권익 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초청하여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의 청렴 특강, 청렴 연극, 샌드아트 등 청렴 문화 콘텐츠와 청렴 교육을 접목해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청렴 관련 행사로 구성되어 법무부 고위공직자와 소속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반부패·청렴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사말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청렴과 청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국민이 바라보는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이 높아짐을 설명하며, 이를 위해 반부패와 청렴 그리고 공정이라는 핵심 가치들을 내재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반부패·청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렴릴레이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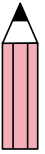
법무부는 6월 27일, 7월 12일과 13일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이해충돌방지담당자 총 275명을 대상으로 '청렴릴레이 1단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1단계 교육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청렴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이해충돌방지법, 갑질금지 등 행동강령을 주요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청렴릴레이 교육은 공직자에 대한 연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부 전 직원을 대상 대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렴릴레이 교육은 업무 경감을 위해 기존 2단계 교육(1단계 이수자가 부서대표 교육)과 3단계 교육(부서대표가 부서원 교육)을 통합하여 기관별 1단계 교육 이수자가 자체적으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릴레이 교육실적은 올해 청렴마일리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이 법무부 전직원의 청렴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사례 발생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법무부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유익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궁금한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제대로 알아보기



✓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청탁금지법과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외부강의등 관련 사례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공무원은 **1시간당(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이 상한액**인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1회에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외부강의등 횟수·시간 제한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질의&답변

Q1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은 그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가요?

A2

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를 이중지급 받는 행위로서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Q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에서 관련규정에 의한 초과사례금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다른 외부강의등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과사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Q4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과목은 같으나 대상이 다른 강의를 요청(각 3시간) 받은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A4

강의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를 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1회 강의당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전·오후강의가 별개의 강의에 해당한다면 각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명성은 올리고 부패위험성은 내리고” 교정 제도개선 **일문일답** 인터뷰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장소변경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방식에 따라 접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용자의 처우 향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간 장소변경접견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올해 상반기 이러한 우려들은 해소하고 당초 도입 취지는 살리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법무부의 부패 취약분야로 꼽히던 ‘수용자 보관금품 접수’ 제도 또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2022년도 청렴도 평가 외부청렴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 향상을 보였습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두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Q - 안녕하세요! 교정본부장님. 우선 장소변경접견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소변경접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A - 수용자의 접견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다만, 수형자가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수용자 처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리벽과 같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실시되는데, 이를 장소변경접견이라고 합니다.

Q - 2022년 청렴도 평가 외부청렴도 부문에서 ‘수용자 보관금품 접수’ 분야가 높은 점수 향상을 보였습니다. 어떤 제도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요?

Q - 지난 3월, 교정본부는 장소변경제도 개선(안)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제도 개선을 추진하신 배경은 무엇인지요?

A - 먼저 내부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일일점검 시 보관금 일계표상의 잔액이 거래은행의 잔액 및 실제 현금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지방교정청장으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소속 기관의 보관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A - 교정본부는 장소변경접견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허가사유를 정비하는 등 장소변경접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용자 또는 접견인이 장소변경접견을 이용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장소변경접견이 특별한 권한이나 신분을 가진 자만이 이용하는 제도는 아닌지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우송금품이 접수된 사실이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관금품관리지침」 상 용어를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구매대금 이체 시기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등 보관금품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Q - 장소변경접견제도 개선(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Q - 교정본부장님, 어떤 제도 개선 사항이 외부청렴도 상승에 특히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A - 먼저, 미결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 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접견 요지를 기록하도록 하던 것에 더하여 접견 내용을 녹음하도록 하였습니다. 증거인멸 등 부정행위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노약자, 어린이 등 거동 불편자에게 장소변경접견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 유력자 중심의 소위 ‘특별면회’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과 상식의 법치’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A - 청렴도 평가 방식을 고려해 볼 때, 보관금일계표에 대한 일일점검을 강화하고, 우송금품 접수 사실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정책들이 2022년도 청렴도 상승에 특히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Q - 장소변경접견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Q - 마지막으로 교정 정책과 청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앞으로도 소속기관의 개선방안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A -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평소 청렴성, 성실성, 전문성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교정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에 부합하는가를 스스로 반문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교정정책과 청렴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청백리(清白吏), 고불 맹사성 선생의 청렴 숨결

충남 아산 '고불맹사성기념관'을 소개하며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 이미란



조선시대 4대 명재상 중 한 분인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은 1386년(고려 우왕 12) 문과에 급제하여 조선의 태조, 정조, 태종, 세종 등 4대에 걸쳐 여러 벼슬을 거치고 좌의정과 우의정까지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인물들에 의해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청백리상으로 이해되어 오늘날까지도 최고의 청백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재상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의전이나 허례허식 일체를 거부했으며,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청렴결백한 관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소.
내 비록 벼슬이 정승이지만 만백성이 내 벗이 아니겠소”**

이는 맹사성이 아산 고향 집에 머물며 저수지 낚시 중에 만난 노인 전침지에게 훗날 자신이 정승인 사실을 털어놓으며 한 말로, 맹사성이 어떠한 위인인지 단번에 보여줍니다. 소탈한 성격과 검소한 생활, 누구에게나 예를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던 위인, 고불 맹사성 선생의 청백리 정신을 현장에서 느껴보고자 아산 고불맹사성기념관에 직접 다녀와 보았습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행단길 22 고불맹사성기념관〉

아산 고불맹사성기념관에서는 고불 맹사성 선생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일대기와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청렴 이야기, 맹씨행단의 역사 등 새로운 역사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맹사성은 판서와 정승의 높은 벼슬을 하고 있으면서도 검은 소를 타고 피리를 불며, 벼슬이 낮은 자를 대할 때도 관대를 갖추고 대문 밖에 나와서 맞이하였고, 상대가 물러날 때도 손을 모으고 몸을 구부린 채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고불맹사성기념관에서 나와 길을 건너면 바로 큰 은행나무가 있고 그 옆엔 최영 장군이 맹사성을 손녀사위로 삼으며 물려준 맹사성고택이 있습니다. 이를 ‘맹씨행단’이라 부르는데, 맹사성이 말년에 은행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고택은 1330년에 지어진 고려 시대의 민가로, 비만 오면 집안 여기저기 빗물 새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맹사성은 이러한 집조차 갖지 못한 백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히려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시문에 능하여 ‘강호사시가’라는 유명한 시조를 남기고, 음률에도 밝아 우리나라 고유의 궁중음악인 향악을 정리하기도 했던 맹사성, 우리가 지금도 맹사성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런 다재다능한 그의 모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가치인 청렴을 실천했던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맹사성의 저택과 사용한 물건 등을 직접 보니 맹사성의 검약했던 청빈한 생활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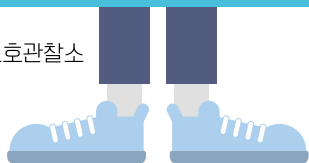
높은 벼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과 남을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늘 백성의 입장에서 서서 담백한 삶을 살았던 맹사성의 삶의 흔적을 보며, 앞으로 저도 맹사성처럼 맡은 업무엔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정직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불맹사성 기념관에 방문하셔서, 맹사성 선생의 청빈의 숨결을 몸소 느끼며 청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청렴은 나부터, 지금부터!

영화 '정직한 후보'로 알아보는 청렴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홍혜원



세상에서 거짓말이 가장 쉬웠어요! 3선 국회의원 주상숙(라미란)은 겉으로 소탈한 국회의원인 듯 보이나, 사실은 호화로운 저택에서 거주하며 거짓말과 비리를 일삼는 4선을 꿈꾸는 정치인이다. 심지어 멀쩡히 살아계신 할머니를 돌아가셨다고 하며, 할머니의 이름으로 재단까지 설립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선거를 앞두고 하루 아침에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데...

이는 최근 속편까지 제작되어 꽤나 화제가 되었던 국내 영화인 '정직한 후보'의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는 갑자기 '진실의 입'을 가지게된 '비리 정치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주인공이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희극적으로 풀어냅니다. 주인공은 비록 정치인이지만 넓게 보면 같은 공직자이기에 이 영화에서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청렴 법령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직생활에서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한번 한 장면씩 톺아보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규정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알아보시죠

#장면 1 자신의 비리를 6년째 캐고 있는 경쟁자 남용성 후보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쓸쓸한 주식 정보를 흘리는 상속
“제가 오늘 집 한 채씩 사 드린 겁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네요. 행동강령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면 2 본인이 추진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로부터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제공받은 상속
“김치 같은 건 그냥 정으로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한 가액 범위 내 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번 8월 30일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가액 범위가 변경되었으니, 모두 법령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면 3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지난날 부패했던 자신을 참회하는 상속
“저는 지금 너무나 씩어 버렸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본 이유 중 하나가 주인공인 상속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다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잘못된 상황을 올바르게 바꾸고자 자신의 비리를 고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청렴하겠어!'라고 결심했던 신규자 때의 초심을 지키며 여러 유혹의 길로 빠지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어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부패한 선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고 반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경험한 공직사회는 청렴하니?’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청렴한 공직자가 훨씬 많아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패한 공직자들이 적발되고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어도 우리 주변에는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청렴한 공직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꼭 수억원을 받지 않은 사람만이, 인사청탁을 거절한 사람만이 청렴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면가 공적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가 등 이런 작은 행동들도 청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나부터, 지금부터 어떤 것이 청렴한 행동인가를 고민해보고 이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소년원
경규민

← 가로

- ① 법무부 공무원 A가 공직유관단체 B기관의 요청에 따라 1시간의 외부강의 교육을 진행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사례금은 얼마일까요? (힌트 :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 4].000원)
- ②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도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에 들어갈 말은 무엇 일까요? (힌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 ③ 법무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율적인 반부패·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법무부 ○○○로 지정하여 2019년부터 다함께 청렴의 각오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 무엇일까요? (힌트 : 법무샘 공지사향 확인!)
- ④ 공직자는 ○○○○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의미합니다.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및 제10조)
- ⑤ 조선의 태조, 정조, 태종, 세종 등 4대에 걸쳐 여러 벼슬을 거치고 좌의정과 우의정까지 역임한 조선 전기 대표적인 청백리는 누구일까요? (힌트 : 고불 ○○○)

↑ 세로

- ① 법무부 공무원 C가 외부 기관의 요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9월 20일에 진행하고 이를 10월 1일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 위반이기도 한데, 과연 공무원 C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신고했어야 할까요? (힌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사적○○○○○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인허가 등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 합니다.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 ③ 올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12월 14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재산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을 추가 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의 거래내역을 신고 하도록 하며, ○○○○ 관련 업무 수행자의 ○○○○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인데, ○○○○은 무엇일까요? (힌트 : 「공직자윤리법」 제4조)



책을 거꾸로 돌려서
정답을 확인해보세요!